■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9-43.
http://doi.org/10.17948/kcs.2022..95.9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김덕원(金德原)**

목 차

1. 머리말
2. 나당동맹의 성립 배경
3. 나당동맹의 내용
4. 맺음말

국문초록

642년에 백제는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는데, 이것을 계기로 김춘추가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변화를 주면서 결국 삼국통일로 이어졌다.

제려연화는 643년에 백제가 고구려에 제안하면서 성립되었다. 목적은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신라와의 충돌을 피하고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신라는 김춘추의 대고구려외교에 의해서 제려연화를 확인하였다.

643년에 백제는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 당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770).
** 명지대 사학과 강사.

태종은 3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제려연화는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48년에 김춘추는 청병과 당제의 수용을 위하여 대당외교를 전개하였다. 당시 당 태종은 병색이 완연한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추는 고구려를 먼저 정벌한 후에 백제를 정벌할 것을 제안하면서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나당동맹의 내용은 군사 동원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전후 처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당 태종으로부터 칙명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김춘추는 당 태종으로부터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인 조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 태종은 군사적인 계획은 645년에 고구려를 정벌할 때와 같은 방법을, 시기는 649년에 계획된 고구려 정벌에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후 처리는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에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 태종의 죽음 이후에 신라와 당의 대내외적인 변화된 상황과 맞물리면서 나당동맹의 내용도 새롭게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제어: 김춘추, 당 태종, 대당외교, 나당동맹, 제려연화.

1. 머리말

7세기 중엽까지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사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내적으로 정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은 626년 현무문의 변이 발생하여 이세민이 태종으로 즉위하였다.[1] 그리고 백제는 642년 의자왕이 왕족과 대신 40여 명을 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친위정변이 일어났고,[2] 고구려는 같은 해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이 시해당하고 보장왕이 즉위하였다.[3] 신라에서는 647년에 비담이 난을 일으켰으며, 그 와중에 선덕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즉위하였다.[4] 또한 왜에서는 645년 중대형이 대화개신을 단행하여 효덕천왕이 즉위하였다.[5]

---

1) 『구당서』 권1, 본기1, 고조 무덕 9년 6월 경신 ; 『자치통감』 권191, 당기7, 고조 무덕 9년 6월 경신.
2) 『일본서기』 권24, 황극기 원년 2월 무자.
3)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5년 겨울 10월.
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 봄 정월.

당시 각국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몇몇 국가들이 상호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각국은 상호 공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영토를 상실하거나 확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적인 위기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몇몇 국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642년에 대야성의 함락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마침내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 이상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외교적인 결과로써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인 결합 상태를 말한다.[6] 따라서 나당동맹은 신라와 당 사이에 외교적인 결과로써 일시적으로 결합된 군사동맹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당동맹은 동맹 체결의 배경과 목적, 체결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 체결 이후의 진행 경과와 종료, 그리고 결과와 영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나당동맹의 성립 이후 신라와 당은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후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동맹이 와해되면서 전쟁의 양상으로 변하였고, 676년 신라가 당을 축출하면서 마침내 삼국통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일통삼한' 의식이 나타났고, 이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한국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정치사는 '정변→동맹→통합'이라는 형태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고, 그 속에서 나당동맹 역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였다.[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나당동맹은 나당관계의 한 부분으로

---

5) 『일본서기』 권24, 효덕기 4년 2월.

6)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권2, 大修館書店, 1984, 1904면.

7) 나당동맹에 대한 연구는 존·씨·재미슨, 「나당동맹의 와해—한중기사 취사의 비교—」, 『역사학보』 44, 역사학회, 1969; 이도학, 「나당동맹의 성격과 소정방피살설」, 『신라문화』 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5; 김병곤, 「나당동맹의 성립과 신라 구법승의 역할」,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2005; 이상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신라의 삼국통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대구사학회, 2017;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참조.

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8] 지금까지 나당동맹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이루어진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 또한 동맹의 전개 과정에서 파생되어 발생하였던 나당전쟁에 대한 연구와[10]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나당동맹과 관련된 자료의 부족에서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나당동맹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동맹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다루어진 분야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나당동맹의 성립 배경

1) 대야성의 함락과 그 영향

8) 나당관계에 대한 연구는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関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学報』 107, 朝鮮学会, 1983; 김수태,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1999; 배근흥, 『7세기 중엽 나당관계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2; 최현화, 「7세기 중엽 나당관계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73, 한국사학회, 2004; 주보돈, 「7세기 나당관계의 시말」, 『영남학』 2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1; 앞의 책, 2018;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역사비평사, 2019; 최희준, 「621년 나당수교와 그 전개 양상」, 『신라사학보』 52, 신라사학회, 2021 참조.

9) '평양 이남 백제 토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윤경진, 「671년 「「답설인귀서」의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한 재해석—백제의 영토의식과 패하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6, 4-5면; 윤진석, 「648년 당 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135-139면 참조.

10) 나당전쟁에 대한 연구는 국방군사연구소, 『나당전쟁사』, 1999 ;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군사』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조릉, 『당・신라 전쟁사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9; 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21 참조.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는 대중외교에 주력하면서 각각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11] 『삼국사기』에는 6세기 말까지 당시 양국이 신라와의 전쟁 등과 같은 정치적인 기사보다는 대부분 대중외교와 관련된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7세기에 접어들면서 삼국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연이어 신라를 침입하면서 삼국은 다시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즉 602년 백제는 신라의 아막성을,[12] 이듬해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13] 침입하였다. 백제는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서쪽 변경지역으로, 고구려는 임진강을 건너 신라의 북쪽 변경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백제와 고구려는 이전과는 다르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신라를 침입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방어체계를 분산시키는 것으로써 일종의 기만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은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즉 백제는 636년(선덕왕 5)에 독산성을,[14] 고구려는 638년에 칠중성을[15] 침입하였다.

---

11) 김수태, 「백제 위덕왕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 2,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김병남, 「백제 위덕왕대의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43, 한국상고사학회, 2004; 최호원, 『고구려 후기 국내정세와 신라관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0; 김진한,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참조.

12) 아막성 전투에 대한 연구는 김병남, 「백제 무왕대의 아막성 전투 과정과 그 결과」, 『전남사학』 22, 전남사학회, 2004; 서영교, 「아막성 전투와 왜」, 『역사학보』 216, 역사학회, 2012; 허중권·정덕기, 「602년 아막성 전투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군사』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박종욱, 「602년 아막성 전투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2013; 서영교, 「백제의 왜사국서 탈취사건—602~3년 아막성·북한산성 전투와 관련하여—」, 『군사』 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이희진, 「아막성 전투에 있어서 왜의 역할을 과장하는 학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라사학보』 28, 신라사학회, 2013 참조.

13) 북한산성 전투에 대한 연구는 김영상, 「아단성과 장한성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5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2; 서영교, 앞의 글, 2013;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사총』 81,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 황보경, 「603년 북한산성 전투 고찰」, 『한국사학보』 58, 고려사학회, 2015; 『역사자료로 본 삼국과 한강』, 주류성, 2016; 김성태, 「『삼국사기』의 북한산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6;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부산경남사학회, 2019;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 『서울학연구』 81,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20; 박성현, 「신라의 '남·북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1 참조.

이때에도 양국은 이전과 같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신라를 침입하였다. 더욱이 백제는 642년에 신라 서쪽의 40여 성을 빼앗았을[16] 뿐만 아니라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지금의 합천)을 함락시켰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이 달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도독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용석 등이 죽었다.[17]

2. 8월에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품석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은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서울에 전달하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나라 서쪽의 주현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 [18]

3. (…) 선덕왕 11년 임인 8월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독 품석이 막객인 사지 검일의 아내가 예뻐 이를 빼앗았으므로 검일이 이를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검일이) 백제군에 내응하여 그 창고를 불태웠으므로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굳게 지키지 못하였다. (…) 품석이 장차 나가려 하다가 장수와 병사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처자를 죽이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죽죽이 남은 병사를 모아 성문을 닫고 몸소 대항하니 (…) 드디어 힘써 싸워서 성이 함락되자 용석과 함께 죽었다. (…) [19]

위의 기록은 신라의 대야성 함락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는 신라 서쪽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라에 대한 침입은 백제의 대내적인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즉 642년 정월에 백제에서는 왕모의 죽음과 더불어 40여 명의 이름 높은 사람들을

1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5년 여름 5월;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37년 여름 5월.
1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7년 겨울 10월 및 11월;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1년 겨울 10월. 칠중성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참조.
1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가을 7월;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가을 7월.
1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월.
18)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8월.
19) 『삼국사기』 권47, 열전7, 죽죽.

섬으로 유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0] 아마도 의자왕은 친위정변으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신라에 대한 침입을 단행하였던 것 같다.[21] 다시 말하면 의자왕은 대내적인 관심을 대외적으로 돌림으로써 정국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실 대야성이 함락된 것은 백제의 공격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혼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였다. 즉 검일이 백제와 내응하여 성 안의 창고를 불태웠기 때문에 굳게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함락되었다. 성주인 김품석이 부도덕한 행위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대야성은 함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대야성은 백제의 공격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하였던 분열과 혼란으로 함락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야성이 함락된 것을 계기로 김춘추는 본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의 싸움을 보복하기 위해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 [22]

2. 신라가 백제를 정벌할 것을 꾀하여 김춘추를 보내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23]

3. 선덕대왕 11년 임인에 백제가 대량주를 격파하였을 때 춘추공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춘추는 이를 한으로 여겨 고구려에 청병하여 백제의 원한을 갚으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24]

4. 이해 (…) 신라가 상신 대아찬 김춘추 등을 보내고 박사 小德 高向黑麻呂・小山中 中臣連押熊을 보내 와서 공작 1쌍과 앵무 1쌍을 바쳤다. 그리고 춘추를 인질로 삼았다. 춘추는 용모가 아름답고 담소를 잘하였다. (…) [25]

---

20) 『일본서기』 권24, 황극기 원년 2월 무자.

21) 김수태, 「의자왕의 친위정변 단행과 대외관계」, 『사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문안식, 「의자왕의 친위정변과 국정쇄신」, 『동국사학』 47,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9; 노중국, 『백제정치사』, 일조각, 2018 참조.

2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겨울.

23)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원년.

24)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5) 『일본서기』 권25, 효덕기 대화 3년 시세.

위의 기록은 김춘추의 외교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김춘추는 당시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642년 고구려와 646년[26] 왜를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27] 일반적으로 김춘추의 외교활동을 '청병'외교로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양국과 백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청병'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가 양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던 이유는 '청병'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고구려와 왜에 사신으로 파견되기 전에 양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642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에 의한 정변이,[28] 그리고 645년 왜에서는 중대형 황자에 의한 대화개신이 발생하였다.[29] 따라서 김춘추는 정변이 발생한 이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0] 이러한 김춘추의 외교활동은 이후 대당외교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야성의 함락을 계기로 김춘추가 외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

---

26) 김춘추의 대왜외교는『일본서기』에 대화 3년인 647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646년 겨울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덕원,『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182면 및 213면.

27) 김춘추의 외교활동에 대한 연구는 三池賢一,「『日本書紀』'金春秋の來朝'記事について」,『駒澤史學』13, 駒澤大学文学部史学会, 1966; 上田正昭・井上秀雄,『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1974;「金春秋小傳」(1),『駒澤史學』15, 駒澤大学文学部史学会, 1968;「金春秋 小傳」(2),『駒澤史學』16, 駒澤大学文学部史学会, 1969; 旗田巍・井上秀雄,『古代の朝鮮』, 學生社, 1974; 김현구,「일당관계의 성립과 나일동맹—『일본서기』 '김춘추의 도일' 기사를 중심으로—」,『김준엽교수화갑기념중국학논총』, 1983; 주보돈,「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한국학논집』2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3; 앞의 책, 2018; 김덕원,「신라 선덕왕대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정국동향」,『신라사학보』5, 신라사학회, 2005b;「신라 진덕왕대 김춘추의 대당외교와 관제정비」,『신라문화』29,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7; 앞의 책, 2007; 박순교,『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연민수,「신라의 대왜외교와 김춘추」,『신라문화』3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1; 김병곤,「왜 개신 정권의 출현과 김춘추의 사행」,『신라사학보』25, 신라사학회, 2012; 나카무라 슈야,『고대 최고의 외교전략가 김춘추』, 역사공간, 2013 ; 이상훈, 앞의 글, 2016; 서영교,「김춘추의 대일노정과 외교」,『항도부산』3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참조.

28)『삼국사기』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5년 겨울 10월.

29)『일본서기』권24, 황극기 4년 6월 무신.

30) 이러한 의미에서 김춘추의 외교활동은 '請兵'외교보다는 '請和'외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앞의 글, 2005b ; 앞의 책, 2007, 183-200면.

후 대당외교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대야성의 함락은 삼국의 정세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결국 신라의 삼국통일로 이어졌다.[31]

2) 제려연화와 당항성 전투

김춘추의 외교활동 이후에도 신라에 대한 백제의 침입은 계속되었다. 특히 643년에는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침입하여 당과 통하는 길을 끊음으로써 신라의 대당외교를 막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C-1.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과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32]
>
> 2. 가을 9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침범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군대를 연합하여 기필코 그것을 빼앗고자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 "라고 하였다.[33]
>
> 3. 가을 9월에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가 우리나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끊으려 합니다."라 말하고,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다.[34]
>
> 4. 겨울 11월에 왕이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 (당에) 조공하는 길을 막고자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니, 신라왕 덕만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군사를 철수하였다.[35]

위의 기록은 백제와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상호 연합하여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36] 신라가 당에 조공하는

---

31) 대야성 함락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신라 선덕왕대 대야성 함락의 의미」, 『동봉신천식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2005a; 앞의 책, 2007, 177-178면; 전덕재,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73면; 주보돈,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38면 참조.

3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월.

3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2년 가을 9월.

34)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2년 가을 9월.

3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년 겨울 11월.

길을 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중지하였다.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였다는 '제려연화'에[37]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38]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39]

주목되는 것은 사료 C-1은 642년의 기록이고, 사료 C-2-4는 643년의 기록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제려연화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제려연화에 대한 기록은 『구당서』, 『책부원귀』, 『자치통감』, 『문관사림』 등의 중국 사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제려연화에 대한 기사는 『구당서』 동이전의 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40] 제려연화에 대한 기록은 관련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착종된 것으로 보인다.[41] 또한 이에 대한

---

36) 당항성에 대한 연구는 이준선, 「신라 당항성의 역사지리적 고찰」, 『관대논문집』 8, 관동대, 1980;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앞의 책, 2016; 최희준, 「신라 '당항성'의 연혁과 선덕왕대 나당관계」, 『선사와 고대』 47, 한국고대학회, 2016;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군사』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의 위치 재론—'당성'설 비판과 '한강'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 역사실학회, 2021 참조.

37) '제려연화'에 대한 연구 성과는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 79, 서울역사편찬원, 2011, 7-20면;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 백제학회, 2015, 71-72면; 방용철, 「려·제연화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6, 282-283면; 선봉조, 『7세기 제·려동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26-38면; 박찬우, 「640년대 전반 '려제연화'의 실상과 당의 백제 인식」, 『사학연구』 141, 한국사학회, 2021, 7-8면 참조.

38) 제려연화를 부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허구, 과장, 술책, 윤색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호영, 「려·제 연화설의 검토」, 『경희사학』 9·10, 경희사학회, 1982; 『신라삼국통합과 려·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353면; 주보돈, 앞의 글, 1993;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39면 및 81면; 최현화, 앞의 글, 2004, 36-37면;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7, 19-21면; 윤성환, 앞의 글, 2011, 33면; 방용철, 앞의 글, 2016, 윤성환, 앞의 글, 2019, 17면; 박찬우, 앞의 글, 2021, 9-14면.

39) 제려연화를 긍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640년대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선봉조는 백제와 고구려는 611년 무렵에 소극적 단계의 동맹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642년에 재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선봉조, 앞의 글, 2017, 119-120면 및 201면.

40) 제려연화에 대한 『삼국사기』와 『구당서』 사료에 대한 검토는 윤성환, 앞의 글, 2019, 4-11면 및 19-25면; 박찬우, 앞의 글, 2021, 9-19면 참조.

41) 사료의 수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존·씨·재미슨, 앞의 글, 1969, 1-10면; 주보돈,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26면; 김덕원, 「7세기 중엽 한·중 사서의 전쟁 기사 검토」, 『한국고

내용이 당시 백제보다 신라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구려를 포함하여 삼국 각각의 본기에 수록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제려연화는 당시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642년에 백제는 대야성을 비롯하여 신라 서쪽의 변경지역을 공격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백제는 전선을 확대하여 신라의 방어체계를 분산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을 계획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신라에게 누설이 되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C-1에서 신라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42] 따라서 제려연화를 미래의 '예견'이나 '추측'이라고 하여 이를 '허구'라고 이해한 견해는[43]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견'이나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허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643년에 백제는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는 계획을 다시 실행하였던 것 같다. 백제는 당과 통하는 길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신라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려고 하였다. 백제는 당항성의 위치와 신라의 방어체계[44] 등을 감안하여 고구려와의 연합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였기[45]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고구려에게

대사탐구』 3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a, 562-563면 참조.

42) 이것은 일반적으로 『삼국사기』 찬자의 두찬으로 이해하고 있다.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23면; 박윤선, 앞의 글, 2007, 14면 주 34); 박주선, 「백제 의자왕대의 신라 고립책과 대왜관계」, 『한국사론』 61, 서울대 국사학과, 2015, 61면; 방용철, 앞의 글, 2016, 284-285면; 최희준, 앞의 글, 2016, 62-63면; 윤성환, 앞의 글, 2019, 24면; 박찬우, 앞의 글, 2021, 10-11면.

43) 이호영, 앞의 글, 1982; 앞의 책, 1997, 353면 및 366-367면.

44)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03-107면;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경주사학회, 2004;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416-417면; 황보경, 앞의 글, 2015; 앞의 책, 2016, 73-87면.

45) 김덕원,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6, 140-144면.

제안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제려연화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이전에 효과를 거두었던 제라동맹이나 려라밀약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백제의 제안을 고구려가 수용함으로써 제려연화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려연화의 목적은 백제와 고구려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는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신라와의 충돌을 피하고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것 같다. 그러나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여 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었다. 따라서 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였던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고구려에게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

한편 신라는 제려연화에 대하여 첩보 수준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은 김춘추의 외교활동에 의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642년 8월 대야성이 함락되기 전에 제려연화에 대한 첩보가 신라에 알려졌던 것 같다. 곧이어 대야성이 함락되었고, 김춘추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아마도 9월 무렵에는 그 방안으로 고구려를 상대로 한 외교활동을 추진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선덕왕에게 당에서 구법을 하고 있는 자장의 귀국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10월에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의 정변이 발생하였고, 12월에는 정변 이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고구려외교를 전개하였다. 여기에 제려연화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김춘추는 고구려에서의 활동 기간을 60일로 하였지만,[46] 고구려에 억류되면서 그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그는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선도해와 같은 고구려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도해는 김춘추에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 줄 정도로 상당히 긴밀하게

46)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접촉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의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제려연화에 대한 첩보도 확인하였던 것 같다. 이후 김춘추는 고구려에서 벗어나서 늦어도 643년 4월 이전에는 신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신라는 제려연화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당항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백제가 당항성을 공격하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47] 이 중에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43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던 사실과도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D-1. 가을 9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침범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를 연합하여 기필코 그것을 빼앗고자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 바라건대 약간의 군사를 내어 구원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변경의 군대를 조금 일으켜 거란과 말갈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곧장 쳐들어가면 너희 나라는 저절로 풀려서 1년 정도는 포위가 느슨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군대가 없음을 알면 도리어 침략을 멋대로 하여 네 나라가 함께 소란해질 것이니, 너희 나라도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책이다. 나는 또한 너에게 수천 개의 붉은 옷과 붉은 깃발을 줄 수 있는데, 두 나라 군사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세워 늘어놓으면 그들이 보고 우리 군사로 여기고 반드시 모두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계책이다. 백제국은 바다의 험난함을 믿고 병기를 수리하지 않고 남녀가 어지럽게 섞여 서로 연회만 베풀고 있는데, 내가 수십 수백 척의 배에 무장한 군사를 싣고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서 곧바로 그 땅을 습격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서 도둑을 불러들이게 되어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다. 내가 왕족 중의 한 사람을 보내 너희 나라의 왕으로 삼되, 혼자서는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서 호위하며, 너희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너희들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계책이다. 너는 잘 생각해 보라. 장차 무엇을 따르겠는가?"라

47) 백제의 당항성 공격 시기에 대한 연구 성과는 윤성환, 앞의 글, 2019, 3-4면 참조.

> 고 하였다. 사신은 다만 “예!”라고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황제는 그가 용렬하여 군사를 청하고 위급함을 알리러 올 만한 인재가 아님을 탄식하였다. 48)

위의 기록은 신라의 구원 요청과 당 태종의 3가지 계책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는 늦어도 643년 4월 이전에 고구려에서 돌아온 김춘추로부터 제려연화와 당항성 침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49) 곧바로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신라에는 당에서 구법을 하고 있던 자장이 3월에 이미 귀국하였는데,50) 그는 정월에 파견하였던 사신과 함께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51) 신라는 당 태종을 비롯하여 황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장의 도움을 받아52) 6-7월 사이에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파견되었던 사신이 9월에 당 태종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 태종은 3가지 계책을 제시하였다. 사실 당 태종의 3가지 계책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제려연화와 같은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는 643년에만 정월, 9월, 11월 등 모두 3차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제려연화와 관련하여 긴박하게 전개되었던 당시 신라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3)

백제는 군사를 보내어 당항성을 공격하다가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

4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2년 가을 9월.

49) 선봉조는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 공략을 모의한 것은 643년 5~6월 이전이라고 하였다. 선봉조, 앞의 글, 2017, 197면 주 87) 참조.

5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2년 3월; 『삼국유사』 권4, 의해5, 자장정률.

51) 김덕원, 앞의 글, 2005b; 앞의 책, 2007, 190-191면.

52) 김덕원, 앞의 책, 2007, 206면;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한국고대사학회, 2010;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 출판부, 2012, 178-179면. 한편 자장이 종남산 운제사에서 내려온 이유를 642년 백제의 대대적인 침공과 연결시키거나(李成市, 「新羅僧慈藏の政治外交上の役割」,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 222면) 645년 당의 고구려 정벌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박찬우, 앞의 글, 2021, 21면 주 40) 참조). 그러나 643년 제려연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53) 윤성환은 643년 9월에 파견한 사절이 신라를 출발한 이후 언젠가 백제와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신라가 입수하였고, 입당한 사절이 귀국하기도 전인 11월에 재차 사신을 파견하여 이러한 내용을 당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윤성환, 앞의 글, 2019, 23면; 그러나 11월에 파견된 사신은 토번 등과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만 있고(『책부원귀』, 권970, 외신부, 조공3, 정관 17년 11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철수하였다.[54] 어쩌면 백제는 당항성 공격 계획을 신라가 미리 입수하여 당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모르고 당항성을 공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신라의 신속한 대처로 말미암아 당항성 전투는 실제로 큰 전투로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645년에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당 태종은 제려연합에 대하여 믿지는 않으면서도 의심은 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643년에 사농승 상리현장을 고구려와 백제에 파견하여 신라를 침공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당 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직전인 645년에도 백제의 부여강신에게 이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55] 신라는 당에 제려연화를 제기함으로써 비록 당으로부터 군사 요청에 대한 확답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당의 관심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645년에 당 태종은 마침내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였다. 신라도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파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E-1. 여름 5월에 (당) 태종이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므로 왕이 군사 3만 명을 내어 도왔다. 백제가 그 빈틈을 타서 나라 서쪽의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56]
>
> 2. 여름 5월에 왕은 (당) 태종이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신라의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는 장군 (김)유신을 보내 쳐들어 왔다.[57]

위의 기록은 당이 고구려 정벌할 때의 신라와 백제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는 당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당을 돕기 위하여 군사를 파견하였는데, 백제는 이러한 틈을 타서 신라를 습격하여 서쪽의 7성을 빼앗았다. 당시 백제가 신라를 습격한 것은 백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8]

---

54) 윤성환은 백제가 당항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는 직접 군대를 출병시켜서 호응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군사)동향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전략적 협력'의 수준으로 이해하였다. 윤성환, 앞의 글, 2011, 40면 ; 앞의 글, 2019, 27면.

55) 『문관사림』 권664, 조34, 무변1,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一首」.

5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

5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5년.

그러나 이러한 백제의 행동은 제려연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이에 호응하자 백제는 고구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라를 공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고구려는 지리적인 격절로 인하여 백제의 도움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다만 고구려의 남쪽 국경지역을 위협하는 신라를 백제가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남쪽 국경지역을 공격한다면, 전선이 남쪽과 서북쪽으로 확대되면서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백제가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는 남쪽 국경지역으로 전력이 분산되지 않고, 서북쪽 국경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결국 고구려가 방어체계를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구려는 전선이 확대되면서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던 경험을 이미 오래전에 하였다. 즉 551년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양국은 각각 한강 상류와 한강 하류의 상이한 지역을 공격하였고, 이에 고구려는 방어체계가 분산되면서 결국 한강유역을 빼앗겼다.[59] 따라서 고구려로서는 방어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제려연화를 통하여 신라를 견제함으로써 남쪽 국경지역을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북쪽의 당에 전념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려연화에서 고구려가 추구하였던 목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의 고구려 정벌은 제려연화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645년 이후에도 당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고구려는 이의 대응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제려연화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따라서 제려연화는 백제와 고구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려연화와 관련된

58) 문안식, 앞의 글, 2004; 앞의 책, 2006, 418-419면;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389-390면.

59)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군사』 1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107-108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제려연화의 관련 사항

순번	연 대		국 명				전 거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당		
1	642	정월		의자왕의 친위정변 발생			서기	
2		7	백제가 40여 성을 빼앗음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함			사기 신본・백본, 당서 백제	
3		(8)		(고구려와의 당항성 공격 계획이 신라에게 누설됨)				
4		8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알림	고구려와 화친하여 신라의 당항성을 탈취하려 함			사기 신본, 당서 백제	당서 백제는 642년에 일괄로 기록됨
5		8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함			사기 신본・백본	
6		(9)	(김춘추가 고구려의 청병과 자장의 귀국을 요청함)					
7		10			연개소문의 정변 발생		사기 고본, 당서 고구려, 서기	서기에는 9월로 기록됨
8		겨울 (12)	김춘추가 고구려에		김춘추가 청병함		사기 신본・고본	

			청병함					
9	643	3	자장이 당에서 귀국함				사기, 유사	
10		(4)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귀환하며 제려연화를 확인함)					
11		(6-7)	(백제의 당항성 공격을 당에 알리는 사신을 파견함)					
12		9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 태종이 3가지 계책을 제시함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함	신라가 구원을 요청하자 태종이 3가지 계책을 제시함	사기 신본・고본, 당서 신라, 원귀, 통감	통감은 3가지 계책이 없고, 원귀는 4가지 계책임
13		9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파견함	당서 고구려・백제・신라, 원귀, 통감	당서 백제는 642년에 일괄로 기록됨
14		11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였으나 철수함			사기 백본	
15	644	정월	상리현장이 고구려에게 신라를 공격하지	상리현장이 고구려와 백제를 타이르니 의자왕이 사례함	상리현장이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사기 신본・백본・고본	당서 고구려・신라는 643년, 원귀, 통감은 643년

			말라고 함		하였으나 연개소문이 거부함			9월로 기록됨
16		7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함	사기 고본	
17	645	정월				태종이 부여강신에게 제려연화 확인함	백제왕조	
18		2			태종이 정주에 이름	태종이 고구려 정벌함	사기 고본, 통감	
19		5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신라가 도움				사기 신본, 당서 신라	
20		5	백제가 7성을 빼앗음	신라의 7성을 빼앗음			사기 신본・백본, 당서 백제	
범례	사기 신본・고본・백본=『삼국사기』 신라본기・고구려본기・백제본기, 유사=『삼국유사』, 당서 신라・고구려・백제=『구당서』 신라・고구려・백제, 원귀=『책부원귀』, 통감=『자치통감』, 서기=『일본서기』, 백제왕조=「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一首」							

( )는 추정

김춘추의 외교활동 이후에도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침입하였다. 백제는 의자왕 초기에 신라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신라의 서북쪽 변경지역을 침입하였다.[60] 특히 645년에는 3월 이전에만 3차례나 신라를 침

60) 문안식, 앞의 글, 2004; 앞의 책, 2006, 420-424면.

입하였다.[61] 이러한 상황은 진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때마다 신라는 김유신을 앞세워 백제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급급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지속적인 침입은 김춘추로 하여금 대당외교를 추진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라는 매년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침입을 받을 때에도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대당외교는 진덕왕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신라는 매년 하정사를 파견하여 당에 조공을 하며 친선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침입을 받을 때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결국 김춘추의 대당외교는 이러한 신라와 당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3. 나당동맹의 내용

1) 김춘추와 당 태종의 면담

642년부터 계속되는 백제의 침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라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대당외교는 진덕왕대에 김춘추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F-1. 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보내 당에 조공하였다. 태종이 광록경 유형을 보내 교외에서 그를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이윽고 (궁성에) 다다르자 (태종이) 춘추의 용모가 영특하고 늠름함을 보고 후하게 대접하였다. 춘추가 국학에 가서 석전과 강론을 참관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아울러 자기가 직접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 그리고 새로 편찬한 『진서』를 내려 주었다.
>
> 2. 어느 날 (춘추를) 불러 사사로이 만나[燕見] 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며 "경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춘추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심긴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침략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개 성을 쳐서 함락시켜 조회할 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

6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 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나라 인민은 모두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고,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공마다 다시는 바락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 출병을 허락하였다.
>
> 3. 춘추가 또 장복을 고쳐 중국의 제도를 따를 것을 청하니, 이에 내전에서 진귀한 옷을 꺼내 춘추와 그를 따라 온 사람에게 주었다. 조칙으로 춘추에게 관작을 주어 특진으로 삼고, 문왕을 좌무위장군으로 삼았다.
>
> 4. 본국으로 돌아올 때 3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송별 잔치를 열게 하여 우대하는 예를 극진히 하였다. 춘추가 아뢰기를 "신에게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고명하신 폐하 옆을 떠나지 않고 숙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그의 아들 문왕과 대감 □□에게 (머물러 숙위할 것을) 명하였다. (…)[62]

위의 기록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 대한 내용이다.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은 대부분 한국 사서와 중국 사서에 공유기사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중복된 문제들은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648년(진덕왕 2) 겨울에[63] 김춘추는 청병을 위해 아들 문왕과 함께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김춘추는 당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국학에 가서 석존과 강론의 참관을 청하였다. 당 태종은 이를 허락하고 아울러 자신이 직접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 및 새롭게 편찬한 『진서』를 내려 주었다. 김춘추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사신의 활동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당 태종의 관심을 끌면서 신뢰감을 심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64]

김춘추가 국학에 참관한 것은 당제를 수용하여 신라의 지배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었다.[65] 당제의 수용은 청병 문제와 더불어 김춘추가 당에 파견된 목적 중에 하나였다. 그는 당제의 수용을 매개로 당 태종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이것은 사전에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제의 수용은 나당동맹을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66] 이와 같이 김춘추는 무리하게 청병을 요구하지 않았

6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겨울.
63) 『구당서』에는 윤12월로 기록되었다. 『구당서』 권3, 본기3, 태종 정관 22년 윤12월 계미.
64) 김덕원,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학보』 49, 신라사학회, 2020b, 59-60면.
65) 주보돈,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43-44면.

는데, 이 방법이 오히려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연개소문과 회담할 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춘추가 당 태종을 면담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차례 이상 이루어졌던 것 같다. 1차 면담은 649년 정월 초하루의 賀正之禮가 끝나고 얼마 후에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와 당 태종의 만남은 일반적인 사신의 접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 태종이 특별히 김춘추를 불러서 독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사료 F-2의 '사사로이 만나[燕見]'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 태종은 김춘추가 고구려와 왜에 사신으로 갔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67] 김춘추도 자신의 외교활동의 결과로써 고구려와 왜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한 정보를 바탕으로[68] 당 태종을 상대하였다. 특히 김춘추는 당 태종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69] 이것을 당 태종과의 면담에서 최대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추와 당 태종과의 면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당 태종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실이다. 당시 당 태종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모두 간과하였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 태종의 건강 상태는 고구려의 정벌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김춘추와의 면담 이후 불과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은 649년 5월에 죽었다.[70] 따라서 당 태종이 김춘추와 면담하던 당시에는 병색이 완연한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추는 당 태종을 만나면 청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병색이 완연한 당 태종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김춘추는 당 태종의 건강 상태

66) 김덕원, 앞의 글, 2020b, 59-60면.
67) 김덕원, 앞의 글, 2007; 앞의 책, 2007, 223-225면.
68) 김춘추의 외교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 27) 참조.
69) 拜根興, 「新羅眞德王代的對唐外交」, 『大陸雜誌』 102卷 第2期(台), 2001; 앞의 글, 2002, 26면.
70) 『구당서』 권3, 본기3, 태종 정관 23년 5월 기사; 『신당서』 권2, 본기2, 태종 정관 23년 5월; 『당회요』 권1, 제호 (상), 정관 23년 5월;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정관 23년 5월.

로 미루어 당이 추진하는 649년의 고구려 정벌은 실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 태종이 계속해서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였던 것은 당 중심의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명분뿐만 아니라 당 태종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의지가 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 태종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전에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을 것이다. 그리하여 648년부터 배를 건조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649년에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춘추는 자신의 의도대로 당 태종이 백제를 먼저 정벌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듯하다. 더욱이 김춘추는 반드시 당의 군사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은 당 태종이 쥐고 있었다.

김춘추는 오히려 당 태종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신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당 태종에게 고구려를 먼저 정벌한 후에 백제를 정벌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한다.[71] 고구려를 정벌하여 당의 고민거리가 사라진 후에 백제를 정벌하는 것이 청병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다. 이것은 당 태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당 태종이 출병 약속을 하면서 마침내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72] 일반적으로 나당동맹은 648년에 김춘추가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후에 곧바로 당 태종을 만나면서 성립된 것으로 이

71) 최현화는 나당동맹 결성 당시의 계획에는 고구려 정벌 후 백제에 대한 공동 군사 계획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최현화,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150-151면), 김종복은 김춘추가 백제 정벌만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정벌까지 포함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김종복, 앞의 글, 2019, 242-243면).

72) 필자는 나당동맹의 성립을 648년으로 파악하였는데(김덕원, 앞의 책, 2007), 여기서 수정하고자 한다. 한편 주보돈은 648년 나당 사이에 군사동맹이 느슨한 형태이기는 하나 성립되었지만(주보돈, 앞의 글, 2011 ; 앞의 책, 2018, 47면), 659년에 사실상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주보돈, 앞의 글, 2017 ; 앞의 책, 2018, 139-140면).

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648년은 김춘추가 당에 파견된 것이지 나당동맹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김춘추와 당 태종은 649년 정월 초하루의 賀正之禮가 끝나고 얼마 후에 만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당동맹은 649년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김춘추와 당 태종의 2차 면담은 649년 2월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649년 2월에 신라로 돌아갔는데,[73] 그 직전에 당 태종과 다시 면담하였던 것 같다. 2차 면담은 김춘추를 환송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신의 접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김춘추는 자신의 아들인 문왕의 숙위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청병과 당제를 수용하는 문제는 신라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숙위를 비롯하여 중국식 연호와 정삭의 사용 등은 당에 체류하는 동안에 김춘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74]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김춘추는 마지막까지도 최대한의 실리적인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맹의 내용과 변화

김춘추와 당 태종의 1차 면담의 결과로 649년 정월에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과는 달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 나라 이상이 상호 동맹을 맺어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시기와 방법, 역할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군사 동원 방법과 지휘 체계, 전략과 전술을 비롯하여 전후 처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나당동맹은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처리와 관련된 문제 역시 그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만 이와 관련된

73) 김춘추는 649년 2월에 환국하였다(『책부원귀』 권109, 제왕부, 연향1, 정관 23년 2월 계사).
74) 김덕원, 앞의 글, 2020b, 59-60면 주 50) 참조. 한편 방향숙은 중국식 정삭의 사용은 기미지배를 수용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하였다. 방향숙, 「당 태종·고종대 한반도 정책과 백제의 위상—당 태종·고종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27, 백제학회, 2019, 64면 주 40) 참조.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G. 대왕이 답서에서 말하기를 "선왕께서 정관 22년에 입조하여 태종 문황제를 직접 뵙고 은혜로운 칙명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매번 침략을 당하여 편안할 때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바가 아니고, 보배와 사람들은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는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라 하고는 계책을 내려 주시고 군사 행동의 기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신라 백성들이 은혜로운 칙명을 듣고 사람마다 힘을 기르고 집집마다 쓰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큰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문제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지금 황제께서 제위에 오르셔서 지난날의 은혜를 계속 이으셨는데, 인자한 베푸심을 자주 입어 지난날보다 정도가 더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다.[75]

위의 기록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설인귀서」에 대한 내용이다. 사료 G는 사료 F-2의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료 F-2는 김춘추의 청병 요청을 당 태종이 허락한 것이고, 사료 G는 출병을 허락한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군사 동원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76]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당 태종으로부터 칙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나당동맹과 관련하여 김춘추는 당 태종으로부터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인 조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77] 오랫동안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던 김춘추가 나당동맹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

7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6) 최현화는 전략과 군기가 정해졌다고 하였고(최현화, 앞의 글, 2006, 150-151면), 주보돈은 시기, 선공 대상, 전후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였다(주보돈,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45면).

77) 주보돈은 김춘추와 당 태종의 면담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졌고(주보돈,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46-47면), 김춘추의 보고로 공식 기록으로 정리되어 남겨진 것이라고 하였다(주보돈, 앞의 글, 2017; 앞의 책, 2018, 128-129면).

아니라 단지 구두로 한 약속만 믿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동맹의 성립과 같은 공식적인 외교관계에서, 특히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공식 문서가 더욱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당동맹의 내용은 공식적인 외교문서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78]

당 태종은 김춘추에게 계책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당 태종은 군사 동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 등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645년 고구려를 정벌할 때와 동일하지 않았을까 한다. 다시 말하면 당은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고구려의 서북쪽을 공격하고, 신라는 육로로 남쪽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분산시켜서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정벌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당 태종은 군사 행동을 실행할 군기도 확정하였는데, 그 시기는 아마도 당이 649년에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던 고구려 정벌에 맞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작전은 군기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모든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늦어도 김춘추가 귀국하는 4-5월 이후에는 군사적인 준비를 곧바로 실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함께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당 태종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에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한 것 같다. 이러한 발언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면적인 의미는 김춘추가 먼저 '고구려 선공'을 제안하자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 태종은 김춘추의 제안에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먼저 고구려를 정벌한 이후에 곧바로 백제를 정벌하겠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양국을 정벌한 이후에 신라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이남 백제토지'와 관련된 당 태종의 발언은 고구려 정벌에 김춘추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나

78) 나당동맹을 '밀약'으로도 이해하고 있는데, '밀약'이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더욱 필요하였을 것이다.

온 것이기 때문에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 태종으로부터 최대의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 태종의 발언은 표면적인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당 태종 발언의 이면적인 의미는 전후처리의 문제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한 이후에 양국의 고토에 각각 도호부를 설치하여[79]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 태종의 발언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로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 태종은 자신의 발언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김춘추의 반발을 의식하였을 것이고, 이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 발언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한다.[80] 이것은 결국 당이 기미지배를 하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643년 당 태종의 3가지 계책 중에서 3책에 해당하는 것이다.[81]

신라도 고구려의 정벌에 참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이후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당 태종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당 태종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김춘추에게 그에 합당한 제안을 함으로써 신라를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평양 이남의 고구려 토지와 백제의 토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평양이남 백제토지'와 관련된 기록의 전승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당동맹을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맺어진 이른바 '밀약'이라고[82] 이해하기도 한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83] 『唐文拾遺』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79) 도독부가 정복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지에도 설치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인데 비해 도호부는 정복지에만 설치되는 특수기구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방향숙, 「백제고토에 대한 당의 지배체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1994, 322-323면 참조.

80) 주보돈은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당 태종이 신라가 백제의 영토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하였던 구차한 변명이라고 하였는데(주보돈, 앞의 글, 2017; 앞의 책, 2018, 144-145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81) 643년에 제시하였던 당 태종의 3가지 계책 중에서 1책은 647년부터 실행된 고구려에 대한 소모전으로, 2책은 김춘추의 당제 수용으로, 3책은 백제 고지의 도호부 설치 계획으로 나타났다.

82)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270-271면.

있다.[84] 앞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5]

이와 같이 사료 F-2와 사료 G의 기록을 통하여 김춘추와 당 태종은 적어도 군사 동원의 방법과 시기 및 전후 처리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합의함으로써[86] 마침내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김춘추는 나당동맹을 성립시킨 후 649년 2월에 당을 출발하여 대체로 4-5월 무렵에는 신라로 돌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 태종과 출병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제도 수용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87] 그리고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는 곧바로 당 태종과의 합의대로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지만, 얼마 후에 당 태종이 죽음으로써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던 것 같다. 당 태종은 나당동맹이 성립한 이후 불과 약 4개월 후인 649년 5월에 죽었다.[88] 그는 죽기 직전에 그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고구려 정벌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필생의 염원인 고구려 정벌을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당 태종의 죽음은 대체로 7-8월 무렵에는 신라에 전해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와서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다가 당 태종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김춘추는 당 태종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김춘추는 당 태종의 죽음 이후에도 나당동맹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한다. 즉 김춘추는 아들인 김법민을 당에 보내서 「태평송」을 바치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

83) 조릉, 「고구려의 멸망에서 나당전쟁 발발로」, 『중국고중세사연구』 44, 중국고중세학회, 2017, 119면.
84) 『唐文拾遺』 권68, 新羅文武王金法敏, 報薛仁貴書. 이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앞의 글, 2020a, 571-572면 ; 김병희, 앞의 글, 2021, 61-64면 참조.
85) 이에 대한 문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86) 주보돈은 전후 처리 문제만 합의되었다고 하였다. 주보돈, 앞의 글, 2011; 앞의 책, 2018, 45면.
87) 주보돈, 앞의 글, 2017; 앞의 책, 2018, 127면.
88) 당 태종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주 70) 참조.

면서 당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89]

당 태종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고구려와 백제에게도 전해졌으며, 그에 따라 양국도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당분간 당이 침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다. 이것은 실제로 655년(보장왕 14)까지 당의 침입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신에 650년에 보덕화상이 완산으로 옮기고,[90] 654년에는 신인이 패망을 예언하는[91]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반하여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H-1.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죽지・천존 등에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10여일 동안 싸웠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도살성 아래 나아가 주둔하였다. … 이에 유신 등이 진격하여 크게 이겨 장사 1백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을 목 베었으며, 전마 1만 필을 획득하였고, 병기와 같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92]
>
> 2. 가을 8월에 왕이 좌장 은상을 보내 정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 장군 유신・진춘・천존・죽지 등이 이를 맞아 치자 (은상이) 이롭지 못하므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도살성 아래에 진을 치고 다시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93]

위의 기록은 당 태종의 죽음 이후 백제의 신라 침입에 대한 내용이다. 649년 8월에 백제는 신라를 침입하여 석토성 등 7성을 함락시켰지만, 결국은 도살성에서 신라의 김유신 등에게 패배하였다.[94] 이때의 전투는 아마도 백제가 당 태종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회를 타서 신라를 침입한 것으

8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4년 및 시세.
90)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9년 여름 6월.
91)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3년 여름 4월.
9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3년 가을 8월.
93)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9년 가을 8월.
94)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6.

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649년 전투가 마치 645년 전투의 재판과 같다는 사실이다. 즉 645년에 백제는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군사를 파견한 틈을 타서 서쪽의 7성을 빼앗는데, 649년에도 당 태종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틈을 타서 7성을 빼앗았다. 두 전투가 모두 당 태종이 전투의 원인이었고, 신라가 피해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이 전투의 원인이 되었지만 당의 정벌은 결국 실패하였고, 이 와중에 백제가 신라를 침입하여 7성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 태종의 죽음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나당동맹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당은 태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즉위하면서 측천무후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 대내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나당동맹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반면에 신라는 나당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654년에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국 나당동맹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라와 당의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과 궤를 같이 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나당동맹의 내용에도 반영이 되면서 이후 새롭게 변화하였다.

4. 맺음말

642년에 백제는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고, 이것을 계기로 김춘추가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결국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대야성의 함락은 삼국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려연화는 643년에 백제가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고구려에 제안하였고, 고구려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은 백제는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신라와의 충돌을 피하고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신라는 김춘추의 대고구려외교에 의해서 제려연화를 확인하였던 것 같다.

즉 김춘추는 고구려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제려연화가 사실이고, 조만간에 당항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 같다. 백제는 643년에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였다.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 당 태종은 3가지 계책을 제시하였다.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고구려는 이의 대응에 집중하면서 제려연화는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청병과 당제의 수용을 위하여 대당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청병을 요청하지 않았다. 김춘추의 행동은 당 태종의 관심을 끌면서 신뢰감을 심어 주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김춘추와 당 태종의 면담은 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649년 정월 초하루의 賀正之禮가 끝나고 얼마 후에 당 태종이 특별히 김춘추를 불러서 독대하였던 것 같다. 당시 당 태종은 병색이 완연한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춘추는 당 태종의 심리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김춘추는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고, 건강 상태로 조바심을 내는 것을 파악하고 고구려를 먼저 정벌한 후에 백제를 정벌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것은 당 태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당 태종이 출병 약속을 하면서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하였다.

2차 면담은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가기 직전인 649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문왕의 숙위를 요청하였다. 숙위를 비롯하여 중국식 연호와 정삭의 사용 등은 김춘추가 당에 체류하는 동안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최대한의 실리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나당동맹의 내용은 「답설인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군사 동원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당 태종으로부터 칙명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김춘추는 당 태종으로부터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인 조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당동맹의 내용은 공식적인 외교문서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 태종은 군사 동원과 관련하여 전략과 전술 등 군사적인 계획은 645년에 고구려를 정벌할 때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군사 행동을 실행할 군기도 확정하였는데, 649년에 계획한 고구려 정벌에 맞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는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에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주겠다고 하였다.

김춘추는 당 태종의 죽음 이후 나당동맹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당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나당동맹은 신라와 당의 변화된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내용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구당서』
『당문습유』
『당회요』
『문관사림』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당서』
『일본서기』
『자치통감』
『책부원귀』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_____, 「7세기 중엽 한·중 사서의 전쟁 기사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a, 562-563면.
_____,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신라사학보』 49, 신라사학회, 2020b, 59-60면.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21.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 출판부, 2012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역사비평사, 2019, 238-262면.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270-271면.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_____, 『백제정치사』, 일조각, 2018.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경주사학회, 2004, 1-31면.
_____,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7, 3-41면.
박찬우, 「640년대 전반 '려제연화'의 실상과 당의 백제 인식」, 『사학연구』 141, 한국사학회, 2021, 5-43면.
방용철, 「려·제연화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6, 277-314면.
방향숙, 「백제고토에 대한 당의 지배체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1994, 322-323면.
_____, 「당 태종·고종대 한반도 정책과 백제의 위상—당 태종·고종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27, 백제학회, 2019, 64면.
배근흥, 『7세기 중엽 나당관계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2.
선봉조, 『7세기 제·려동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군사』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1-38면.

이호영,「려·제 연화설의 검토」,『경희사학』9·10, 경희사학회, 1982, 1-11면.
_____,『신라삼국통합과 려·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조릉,「당·신라 전쟁사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9.
존·씨·재미슨,「나당동맹의 와해—한중기사 취사의 비교—」,『역사학보』44, 역사학회, 1969, 1-10면.
주보돈,「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 내정」,『한국학논집』2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3, 21-52면.
_____,「7세기 나당관계의 시말」,『영남학』2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1, 131-172면.
_____,「나당동맹의 시말」,『대구사학』126, 대구사학회, 2017, 61-98면.
_____,『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최현화,「7세기 중엽 나당관계에 관한 고찰」,『사학연구』73, 한국사학회, 2004, 25-55면.
_____,「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역사와 현실』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147-173면.
황보경,「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군사』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135-171면.

【Abstract】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Silla and Tang Alliance

Kim, Deok-Won*

In 642, Baekje captured Daeya castle of Silla. This served as a background that the Silla and Tang Alliance was formed while Kim Chun-chu was carrying out diplomacy policy toward Tang and which resulted in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nd eventually led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e coalition between Baekje and Goguryeo was established in 643 when Baekje proposed it to Goguryeo to attack Danghang castle in Silla. The purpose of which Baekje would attack Silla and Goguryeo would defend against the intrusion of Tang, but it had a common goal to prevent Tang from intervening. In 645, when Tang Taizong conquered Goguryeo, the coalition between Goguryeo and Baekje ended.

In 648, Kim Chun-chu developed diplomatics toward Tang due to military request and acceptance of Tang's system. The Silla and Tang Alliance was established in 649, when Kim Chun-Chu suggested that they should conquer Goguryeo first and then Baekje. Kim Chun-chu received an official document, a royal document, from Tang Taizong, not an oral promise to the Silla and Tang Alliance.

Tang Taizong used the same method as when he conquered Goguryeo in 645, and set the time for the planned conquest of Goguryeo in 649. In the post-war process, after conquering Goguryeo and Baekje, he offered to give Silla 'south of Pyongyang the land of Baekje'.

Keywords: Kim Chun-chu, Tang Taizong, diplomacy policy toward Tang, Silla and Tang Alliance, the coalition between Baekje and Goguryeo.

접수일: 2022.03.28.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23.

* Instructor, Dept. of History, Myungji Univ.